

환경분과위원회의 프로젝트

동북아시아지역과의 철새에 관한 공동조사

1. 목적

일본에서는 극동지역을 비롯하여 대륙으로부터 넘어오는 개똥찌바퀴, 가시라다카(참새과) 등의 작은철새의 이동경로 등을 밝히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체계가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철새의 번식지 및 이동코스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극동지역에서는 일본과 대륙을 왕래하는 철새경로 등이 밝혀져 있지 않다.

이를 위해 도야마현과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서는 철새의 이동경로, 수명, 번식 개시 연령 등을 밝히기 위한 표식조사를 1998년부터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2. 조사내용

- (1) 실시시기: 이동시기인 봄철과 가을철
- (2) 실시지자체: 러시아 연해주 지방, 도야마현
- (3) 조사방법: 양 지자체가 민간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실시
- (4) 조사방법 및 보고서의 작성

(조사방법)

- 조류유인기자재(미끼용)를 사용하여 철새를 새잡이용 그물(가는 실로 만든)로 포획.
- 포획한 철새는 종별이나 체중 등을 기록해서 표식조사용 족쇄를 장착 후, 다시 날려 보낸다.

(조사보고서의 작성)

- 공통된 기록양식으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다.

3. 2003년 조사 결과

(1) 조사 결과

-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서 약 1만 2천 마리의 철새에 족쇄를 장착했다.
- 조사 방법과 표식조사 결과의 정리 작성에 대해서 러시아 연해주 지방과의 공동이해가 깊어졌다.
- 2003년 9월 도야마현의 전문가 및 중학생 주니어 내츄럴리스트를 러시아 연해주 지방으로 파견하여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에코클럽 학생들과 교류를 도모했다.

(2) 조사 결과

- 러시아 연해주 지방 및 도야마현에서의 조류보호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 향상이 피해짐

4. 2004년 조사 실시 상황

(1) 실시 지자체 : 러시아 연해주 지방, 도야마현

(2) 실시 상황

- 봄에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전문가 및 에코클럽의 학생들을 도야마현으로 영입하여 공동 조사를 실시.
- 가을에 양 지자체에서 표식조사를 실시.



2003년 9월 러시아 연해주지방에서의 공동조사.
도야마현의 주니어 내츄럴리스트도 참가해서 그물에 잡힌 새를 회수하는 모습.



2004년 4월 도야마현에서의 공동조사.
러시아 연해주 지방 에코클럽 학생들도 참가하여
등지걸기를 공동으로 실시.